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Balkan Conflict in the Outbreak of World War I: Focusing on Perspective of Patron–Client Relationship between states\*

Lee Young Soo\*\* · Park Sang Nam\*\*\*

Hansei University, Hanshin University

## Abstract

Previous studies on international politics dealing with World War I mainly pointed to the balance of power and alliance issues as the causes of war. This view saw the assassination of Sarajevo, the direct cause of the war, as a simple opportunity. As a result, these studies can explain 'what made war inevitable' but still need to fully explain 'why the war started in the Balkans and how it spread throughout Europe.'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ese preceding studies, this study aim to find the origin of World War 1 in the context of the Balkan, which began with the conflict between Germany-Austria and Russia-Serbia.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Balkan crisi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risis through the concept of Shoemaker and Spanier's patron-client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crisis manipulation. As a result, it confirmed that competition between Russia and Germany and crisis manipulation attempts by their client states did not necessarily lead to war. But crisis manipulation has instilled a competitive mindset in patron states that will potentially and cumulatively work. Since then, unexpected crises have occurred, and rival patrons have suspected that their opponents are planning grand strategic conspiracies and challenges. As a result, they have become vulnerable to crisis manipulation by the clients. This situation was the cause of the

---

\* This study re-edited the first author's doctoral thesis..

\*\* Lecturer, Hansei University. E-mail: ypra1989@gmail.com

\*\*\*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E-mail: allo7@hanmail.net

outbreak of World War I in the context of the Balkans' patron-client relationship.

**Keywords**

origin of world war1, Balkan question, Germany-Russia, Austria-Serbia, Patron-Client Relationship, Crisis Manipulation

#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서 발칸분쟁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국가 간 후견-피후견 관계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영수\*\* · 박상남\*\*\*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 요약

제1차 세계대전을 다루는 국제정치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세력균형과 동맹 문제를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시각들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사라예보 암살을 단순한 계기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무엇이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왜 전쟁이 발칸 반도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지'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독일-오스트리아와 러시아-세르비아의 갈등으로 시작된 발칸반도의 맥락에서 1차 세계대전의 기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슈메이커와 스파니에의 국가 간 후견-피후견 관계와 위기 조작의 개념을 통해 발칸 위기의 역사적 배경과 위기의 전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와 독일의 경쟁과 그들의 피후견국들의 위기 조종 시도가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지는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기 조종은 잠재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나타날 후견국의 경쟁적 사고방식을 심어주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고, 경쟁 후견국들은 상대가 대전략적 음모와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 결과 그들은 피후견국들에 의한 위기 조작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발칸의 후견-피후견 관계의 맥락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 원인이 되었다.

## 주제어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 발칸문제, 독일-오스트리아, 러시아-세르비아, 후견-피후견관계, 위기조종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재편집했습니다.

\*\*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이메일: ypra1989@gmail.com

\*\*\* 한신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이메일: allo7@hanmail.net

## I. 서론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가져온 전례 없는 규모와 피해, 그리고 여파로 인해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어들였다. 연구자들은 이 최초의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자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세력균형론에 기반을 둔 설명이다.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독일 통일 이후 독일 권력의 강화, 그로 인한 독일과 영국이라는 양극을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의 경직성 강화라는 유럽 세력균형체제의 변동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는다(Nye, 2000, pp.109-110). 한편, 신현실주의자인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는 동맹체제의 유연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월츠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이 다수의 행위자들 간에 힘의 분포가 비교적 균등한 다극체제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하는 블록을 구성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위기나, 모험적인 국가의 모험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동맹의 와해를 막기 위해 연루되어 갔음을 지적한다(Waltz, 2000, p.258).<sup>1)</sup>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전쟁을 세계대전으로 확대시킨 강대국들의 동기와 배경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세계대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왜’ 전쟁이 1914년 발칸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만이 가능하다.

1) 달리 말해 전통적 세력균형론자들은 불확실성의 감소를, 월츠는 불확실성의 증가를 각각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성원 2022, p.46). 그리고 양측 모두 대표적인 사례를 제1차 세계대전이라 보았다.

분명 독일은 경직성 혹은 유연성에 의해서 오스트리아로 인해 전쟁에 끌려들어갔다. 그러나 독일의 지지를 받아 군사행동에 나서려는 오스트리아의 시도는 이전에는 번번이 거부되었다. 게다가 세르비아와 러시아의 행동 역시 세력균형론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세르비아가 이탈하거나 굴복한다고 해서 러시아, 그리고 삼국협상(Triple Entente)이 삼국동맹(Triple Alliance)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세력불균형에 처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러시아는 세르비아의 편에서 전쟁을 감수했다.

이와 같은 세력균형론의 한계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강대국 간의 정치뿐만이 아닌, 그들의 하위파트너였던 약소국과 관련된 맥락이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요아킴 레마크(Joachim Remak)는 제3차 발칸 전쟁(Third Balkan War)이라는 표현으로 세계대전의 발칸적 기원을 강조했다. 레마크 이후로도 적잖은 제1차 세계대전 연구자들은 동방문제(Eastern Question)에서 비롯된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독일과 러시아의 갈등에 주목했다(Remak, 1971; Leonhard, 2018; Lieven, 2016; Münkler, 2017).

국제관계의 역사에서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이 강대국과 약소국을 모두 포함하는 다층적 성격을 지니는 갈등은 드물지 않다. 최초의 패권전쟁이라 불리는 펠레폰네소스전쟁(Peloponnesian War)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패권갈등이기도 했지만, 코르키라나 테베같은 그들의 식민도시들 간 갈등이기도 했다. 냉전 시기 쿠바 핵 위기 역시,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패권경쟁 이면에는 쿠바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또 하나의 측면을 차지했다. 최근의 우크라이나전쟁도 서방과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로 구성된 복합전으로 설명된다(장세호, 2022, p.10).

때문에 국제관계 연구자들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맥락이 함께 맞물린

위기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제안해 왔다. 본 연구는 그 가운데서도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의 틀을 사용해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으로 발칸 문제를 주목하는 연구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왜’ 전쟁이 1914년 발칸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발칸적 기원을 찾고자한다.

이를 위해 독일-오스트리아와 러시아-세르비아간 관계의 대립에서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을 찾는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2장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관계를 다루는 개념들 가운데서 왜 본 연구는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를 연구의 틀로 설정하였는지, 그리고 이 관계의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1908년부터 1914년에 이르는 발칸의 위기를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합병 위기, 제1차 2차 발칸전쟁, 그리고 7월 위기로 구분한 뒤, 각 시기 별로 역사적 전개를 위기의 원인과 결과, 후견국의 협력·경쟁적 사고와 피후견국의 위기 조종의 성공 가능성에 관련지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1908년은 유럽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독일이 세계정책(Weltpolitik)을 천명한 뒤, 모로코위기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영국의 세계적 패권과 현상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른 한편, 발칸에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합병을 두고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 충돌하면서, 발칸을 둘러싼 두 영향권간의 긴장이 발생했다. 양측은 자신의 후견국에게 지원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 그들의 피후견국들 간의 갈등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 데 있어 그 시작점으로서 유의미할 것이다.

이어서 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발칸의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의 맥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한다.

## II. 연구방법: 슈메이커와 스파니에의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관계들을 공통적으로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연구 대상 기간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공식적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맹을 분석 틀로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세르비아와 러시아간에는 공식적인 동맹조약이 없었다. 따라서 이 관계에 ‘동맹’이라는 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분석틀은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다. 인류학 연구에서 먼저 고안된 이 관계에서 후견측(patron)이 피후견측(client)에게 특정한 호의를 제공하면, 피후견측은 그 대가로 충성을 바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공식적인 조약이 없더라도 관계의 구성원들 간에 정서적 친밀성을 느낀다는 점, 그리고 구성원들이 호혜적 관계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후견-피후견 관계는 다른 약자와 강자 간의 비대칭적 관계와 차이를 보인다(Carney, 1989, pp.43-45).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정치에 후견-피후견관계의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인 연구가 슈메이커(Christopher Shoemaker)와 스파니에(John Spanier)의 연구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을 때, 국가 간 관계가 후견-피후견관계의 성격을 띤다고 보았다. 첫째, 참여한 국가 간 군사적 능력에서 결정적인 비대칭이 있어야 한다. 둘째, 피후견국은 후견국의 경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세 번째로, 두 국가의 긴밀한 결합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기꺼이 표명되어야 한다(Shoemaker & Spanier, 1984, p.13).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세부적

으로 다양한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슈메이커와 스파니에는 피후견국이 직면한 위협의 수준, 그리고 후견국이 관계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후견-피후견관계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들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후견-피후견관계에 내재된 불안정이 고조되거나 혹은 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선 피후견국이 직면한 위협의 수준이 높은 경우, 후견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피후견국의 이념적 순응인지, 국제적 연대인지, 혹은 전략적 이점인지에 따라 관계는 후견국 중심(Patron Centric), 후견국 우위(Patron-Prevalence), 영향력 분할(Influence Parity)로 구분된다. 이 유형의 관계에서 피후견국들은 위협에 직면해 있기에 후견국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구한다. 또한 피후견국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후견국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수하고자 하는 비용이 커진다.

반면, 남은 세 가지 형태는 피후견국이 받는 위협이 낮은 상황에 있다. 그 결과 후견국의 요구에 덜 순종적이다. 이러한 유형들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후견국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후견-피후견국 간 무관심(Patron-Client Indifference), 피후견국 우위(Client-Prevalence) 피후견국 중심(Client-Centric) 유형이다(Shoemaker & Spanier, 1984, pp.26-44).

또한 이러한 유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내부적인 목표 구조(Internal Goal Structure)나 외부적인 국제 환경(The International Milieu)이 변화함에 따라, 유형이 변화된다고 보았다(Shoemaker & Spanier, 1984, pp.48-55).

슈메이커와 스파니에는 위기가 관계의 성격이 바뀌는데 있어,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 주장한다. 위기는 짧은 시간 내에 극적인 변화가 작용하게 만들기에, 후견국과 피후견국은 위기 조종(Crisis Manipulation)을 통해 이를 이용하고자 시도한다. 위기 조종에는 크게 위기 과장

(Crisis Exaggeration)과 위기 조작(Crisis Fabrication)으로 나뉘는데 둘 다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관계 내 파트너에게 영향을 끼칠 목적을 지닌다(Shoemaker & Spanier, 1984, p.75).

〈표1.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 유형분류〉

		후견국이 추구하는 목표		
		이념	국제적 연대	전략적 이익
피후견국이 처한 위협적인 환경	높음	후견국 중심	후견국 우위	영향력 분할
	낮음	후견-피후견간 무관심	피후견국 우위	피후견국 중심
후견국에 대한 피후견국의 영향력		낮음		높음

출처: 슈메이커와 스파니에(Shoemaker & Spanier, 1984, pp.48-55)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위기 과장은 기존의 위협을 보다 크고, 임박했다고 파트너에게 확신 시키는 행위다. 조종을 시도하는 측은 과장을 통해 파트너의 이전보다 더 큰 양보를 희망한다. 과장은 만약 실패해도 조종자의 신뢰가 상처 입을 뿐이기에 이론적으로 리스크는 작다. 반면, 위기 조작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피후견국이 이길 수 없음을 아는 위기 상황을 피후견국이 초래하려는 의도를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위기 조작에 실패해 후견국이 원하는 데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피후견국은 물러나거나, 존재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위기 조작이 피후견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공했다면, 국제체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Shoemaker & Spanier, 1984, pp.76-78).

위기 조종, 특히 그 가운데서도 위기 조작이 성공할 가능성은 국제체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Shoemaker & Spanier 1984, p.57). 특히 상

황이 후견국들 간 경쟁과 협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될 때 그러하다. 강대국은 주로 다른 강대국을 지역에서 배제하기 위해 약소국들과 대외 관계를 수립한다. 때문에 강대국간 경쟁은 그들에게 친구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만들고, 피후견국들에게 예상외의 영향력을 준다(Windsor 1991).<sup>1)</sup> 반대로 후견국인 강대국들의 관계가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기울 때, 피후견국의 후견국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고 낮아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슈메이커와 스파니에의 국가간 후견-피후견관계에 관한 유형분류와 위기 조종에 관한 개념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있어 오스트리아-독일관계와 세르비아-러시아관계가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구체적인 유형분류에 있어서 오스트리아와 독일, 러시아와 세르비아 관계는 피후견국들이 위협적인 환경에 처해있다는 면에서 후견국이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유형들에 속한다. 발칸을 사이에 둔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독일의 도움이 없다면 오스트리아는 자력으로 버틸 수 없었다.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후원은 필수불가결이었다.

반면, 피후견국들은 후견국들에게 대체하기 힘든 전략적 이익을 제공해주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와 프랑스 동맹에 맞서 독일이 포위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었다. 러시아에게 있어 세르비아는 전통적 이해가 걸려있는 발칸에 위치해 있어 전략적 거점을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이 두 쌍의 관계는 피후견국이 위협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고, 후견국이 피후견국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향력 분할 유형에 대한 정의에 부합한다. 영향력 분할 관계는 구성 국가들이 관계의 보존을 위해 최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성격을 지니며 이로 인해 위기 조종에 취

1) 최근의 사례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미중경쟁의 첨예화에 따라, 남향정책의 주안점을 변화시킨 대만의 결정과 그 영향을 언급할 수 있다 (김선재&김수한 2022).

약하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세르비아와 러시아 관계, 독일과 오스트리아 관계에 대한 각 시기별 유형 분류와 함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위기를 이용해 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피후견국의 위기조작 시도와 후견국의 대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위기의 결과는 어떠한지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후견국들 간의 상호인식이 협력과 경쟁 가운데 어느쪽으로 기울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경쟁 혹은 협력으로 후견국들 간 관계의 편향은 우호국에 대한 그들의 욕구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후견국들 간, 특히 협력과 경쟁에 대한 후견국들 간의 상호인식은 피후견국들의 위기조작 성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틀을 통해 피후견국의 위기 조종이 성공하고 나아가서는 후견국들이 연루된 전면전쟁으로 확산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2.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 관련 위기의 구성요소들〉

위기의 원인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위기 조종의 결과인가, 의도되지 않은 위기인가	
위기 조종	위기가 제공하는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피후견국이 위기를 조작해 이점을 삼으려 하는 시도.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피후견국의 목적과 수단, 성공여부.	
	위기 과장	위협이 임박했다고 과장하여 파트너 국가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
	위기 조작	일반적으로 후견-피후견국 모두 피후견국이 이길 수 없음을 아는 위기 상황을 피후견국이 만들려는 의도를 밝히는 시도.
후견국간 협력·경쟁적 사고	후견국들의 정책결정자들이 상대 강대국과의 협력 혹은 경쟁이 자국에게 이익이 되거나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고. 주로 후견국 정책결정자들의 국제환경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초래한	

	배경.
위기의 결과	위의 위기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 각 관계(후견국과 후견국, 후견국과 피후견국)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출처: 본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 III. 사례의 분석

#### 1. 1908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위기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위기는 18세기적 밀실외교가 20세기의 대중 정치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위기였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지난 세기에 독일 및 이탈리아의 통일 등으로 경험한 후퇴와 패배 이후, 쇠락해 가고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었다. 또한 1903년의 쿠데타 이후 갈수록 민족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세르비아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Clark, 2013, p.3-42; Šarenac, 2020). 오스트리아의 신임 외무장관인 에렌탈(Alois Lexa von Aehrenthal)은 40년 가까이 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합병이 제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리라 믿었다.

그는 러시아 외무장관 이즈볼스키(Alexander Petrovich Izvolsky)와 만나 합병에 대해 합의했고, 승인의 대가로 터키해협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유리하게 바꾸도록 지지를 약속했다(MacMillan, 2013, p.428). 그러나 합병이 발표되자, 국제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슬라브민족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형제 민족의 땅이 양도되는 상황을 막지 않는데 대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를 자신들이 수복해야할 옛 제국의 영토로 여기던 세르비아에서도 오스트리아에 대한 분노가 여론을 지배했다(Bridge & Bullen, 2005, p.291). 이러한 여론의 흐름 속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합병은 위기

로 번졌다.

합병이 예상하지 못한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오스트리아는 약속했던 러시아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 또한 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그동안 이즈볼스키가 합병을 긍정적인 회의와 서신기록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독일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세르비아에게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합병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전달했다(MacMillan, 2013, p.413). 이에 세르비아가 접경지역에 군대를 이동시키는 등 전쟁준비태세에 돌입하면서 러시아의 지지를 구하자, 오스트리아 역시 부분동원령을 선포했다(MacMillan, 2013, p.429). 세르비아에 대한 군사행동은 세르비아의 후견국인 러시아를 개입시킬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봤을 때, 언급된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의 행동들은 후견-피후견국 모두 피후견국이 이길 수 없음을 아는 위기 상황(세르비아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러시아)을 피후견국이 만들려는 의도를 밝히는 위기 조작에 해당한다. 두 피후견국은 모두 위기 조작을 시도했지만 오스트리아-헝가리는 러시아가 합병을 승인하도록 독일의 지지와 개입을 이끌어내 성공한데 반해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의 편에서 개입한 이유는 전략적 이점을 주는 피후견국과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최대한 멀리나가려는 영향력 분할 유형의 특징에 가까웠다. 더불어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대외적 승리를 통해 내부불만을 잠재우려는 목적이 있었다(Kitchen, 2011, p.255).<sup>2)</sup> 또한 식민지 정책을 두고 프랑스와 독일이 충돌한 제1차 모로코 위기 당시 러시아가 기대를 저버린데 대한 양갈음이기도 했다(Lieven,

2) 독일은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 계층의 사회변혁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외적 팽창으로 대중의 눈길을 돌리는 관계 민족주의정책을 펴고 있었다. 관련해서는 Snyder(2000)을 참조.

2016, p.188). 반면 러시아는 러일전쟁의 패배와 혁명으로 피폐화된 상태에서 다른 협상국들의 지지 없이 독일에 맞설 수 없다고 판단해 합병 승인 요구를 받아들였다.

합병위기가 오스트리아의 위기 조종이 성공하는 형태로 끝나자, 후견국들에게 경쟁적 사고를 위한 토양이 마련되었다. 러시아는 충분한 힘이 없어서 독일에 맞서지 못했다는 굴욕감을 느꼈다(MacMillan, 2013, p.435). 그리고 다시 그런 위협이 찾아왔을 때에는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사고가 러시아 지배 엘리트들에게 심어졌다. 반면 독일은 자신들이 러시아에게 지나친 굴욕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려했다(Taylor, 1980, p.483). 그리고 언젠가 러시아가 힘을 회복했을 때, 설욕을 하려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도자들의 사고에 자리 잡았다.

위기는 또한 세르비아와 러시아간의 연대를 강화시켰다. 러시아는 “슬라브 민족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세르비아에게 충분한 지지를 보내지 못했다는 부채감과 함께 독일과 오스트리아라는 공통의 적에 대한 적대를 바탕으로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Rich, 1991, p.414). 후견국과 피후견국은 위협이 공유됨에 따라 관계 내부적 목표 구조가 변화되었다. 그 결과, 세르비아-러시아관계에서는 ‘영향력 분할’ 유형의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관계 역시 관계 내 목표 구조가 변화되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희생했다고 봤다.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데탕트를 추구하면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지를 유보할 태도를 보였다.<sup>3)</sup> 반면 오스트리아는 기대했던 대외적 승리로 자신감보다는 “수치와 고립”을 느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의 대외정책은 현상유지적으로 회귀했다(Tunstall, 2003, p.122). 모험적

3) 대표적으로 1911년 포츠담 회담(Potsdam Conference)에서 러시아는 페르시아에서 독일 상품 수출과 바그다드 철도 계획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페르시아에서 러시아의 철도독점권을 존중하겠다는 독일의 제안을 응낙했다(Taylor 1980, 463).

인 독일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도 포기되었다(Rauchensteiner, 2014, p.66). 서로에게 이점이 되었던 관계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수했던 리스크의 여파로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관계는 후견국과 피후견국 모두 서로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하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상호 무관심’ 유형에 가깝게 변화하였다.

## 2. 제1,2차 발칸전쟁

발칸전쟁의 배경이 된 것은 1912년을 전후해 오스만 제국을 덮친 연이은 위기였다. 이탈리아는 다른 열강들의 묵인 속에 1911년 터키령 북아프리카 지역인 리비아를 침공했다(박상섭, 2014, p.124). 또한 청년 투르크당이 집권한 이후 추진한 중앙화, 터키 국민화 정책은 발칸의 비터키계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었다(Hacısalihoglu, 2013; Fischer, 2016).

유럽에서의 오스만 세력이 이러한 연속된 위기로 급격히 취약해지자, 발칸 국가들은 이를 확장의 기회로 보았다. 그들은 오스만의 붕괴와 오스트리아-독일 세력의 남하를 대비해 방어적 목적으로 러시아가 중재해준 발칸연맹을 활용해 국력을 집결시켜 터키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Rich, 1991, p.426). 발칸 국가들의 선전포고는 그들 국가들이 개별적으로는 그동안 한 번도 터키를 이겨본 적 없고, 현상유지를 위해 열강들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 조작이었다.

열강의 하나로서 러시아는 발칸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발칸연맹의 모험을 억제해야 했다. 하지만, 국내의 범슬라브주의 여론과 발칸 국가들이 패퇴할시 감수해야할 전략적 손실이 우려되었다. 때문에 러시아는 남부 국경지역에 시범 동원령을 발령하고 군사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해 오스트리아를 견제했다(Clark, 2013, pp.266-268). 러시아를 그들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게 만들었다는데서 전쟁의 위기 조작으로서의

목적은 성공했다.

전쟁의 발발뿐만 아니라 진행 중에도 피후견국들의 위기 조종은 지속되었다. 세르비아는 전쟁의 목적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드리아(Adriatic Sea)해안으로의 진출임을 공공연하게 밝혔다(MacMillan, 2013, p.481). 또한 제1차 발칸전쟁이 런던조약(Treaty of London 1913)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몬테네그로의 스쿠타리(Scutari) 공격을 지원했다. 게다가 전후 알바니아의 건국으로 아드리아해 접근이 차단되자, 불만을 품고, 민병대의 침입을 명분삼아 알바니아 영토를 점령했다(Wawro, 2014, p.93). 모두, 피후견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위기 상황(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의 갈등 및 대처)을 만들 의도를 밝히는 위기 조작에 해당한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가 접경지대에서 시범동원령을 선포하자, 부분 동원령으로 맞대응했다. 세르비아와의 접경지역에서도 부분동원령을 선포했다. 이러한 행동은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위기 조작에 해당한다. 또한 제2차 발칸전쟁이 발발하자, 세르비아의 성장과 잠재적 동맹인 불가리아의 쇠퇴를 막기 위한 군사행동에 삼국동맹에 지지를 요구했다(Lieven, 2016, pp.275-276). 이는 기존의 위협을 크고 압박했다고 과장하는 위기 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조종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러시아는 결국 세르비아의 아드리아해안 접근을 차단하는 형태로 알바니아의 독립을 승인했다. 또한 몬테네그로의 스쿠타리 공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Crampton, 1977, p.376). 그리고 세르비아가 알바니아 지역을 점령으로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에 직면했을 때, 세르비아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Clark, 2013, p.287).

독일은 황제와 재상이 오스트리아의 입장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의미는 미약했다(MacMillan, 2013,

p.488). 러시아의 시범동원령을 철회시킨 건 독일의 태도가 아닌 프란츠 요제프(Franz Josef I) 황제가 니콜라이2세(Nicholas II)에게 보낸 서신이었다. 독일은 알바니아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가로 오스트리아에게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게 최대한 알바니아의 영토를 양보하게 했다(Crampton, 1977, pp.374-375). 또한 오스트리아가 제2차 발칸전쟁에서 삼국동맹의 지지를 호소한데 대한 독일의 답변은 ‘기존의 현상유지 입장에 충실하라’였다.

이와 같이 피후견국들의 위기 조종이 대부분 실패한 배경에는 후견국들의 데탕트 추구가 있었다. 독일과 러시아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합병위기가 가져온 충격을 관리하기 위해 협력했다(Taylor, 1980, p.463). 독일은 합병위기가 촉발한 러시아의 분노를 잠재우길 원했고, 러시아는 혁명과 전쟁의 폐허에서 국력을 회복하는 동안 독일과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다. 물론 데탕트의 지속에 대해서 양측은 확신하지 못했고, 기대를 품지도 않았다.<sup>4)</sup> 그럼에도 양측은 데탕트가 가져다주는 편익에 만족하는 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고, 협력으로 기울었다.

발칸전쟁의 결과를 볼 때, 세르비아는 최대의 수혜자였다. 영토는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인구도 500만에 근접하게 되었다(Hall, 2003, p.102). 이와 같이 성장한 역량을 바탕으로 세르비아는 세르비아민족통합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세르비아는 국력이 증가됨에 따라 러시아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고 발칸반도에서 영향력을 투사하는데 있어 세르비아는 보다 중요해졌다. 후견국의 전략적 계산에서 피후견국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관계의 목표 구조가 변화를 겪었다. 러시아는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세르비아와의 긴

4) 독일의 베스만 홀베크(Theobald von Bethmann Hollweg) 재상은 1912년, “러시아는 다른 열강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기엔 우린 지나치게 강하고,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했으며, 지나치게 역겹다”라고 평가했다(Otte, 2014, p.15).

밀한 유대를 과시했고, 영향력 분할의 성격은 공고해졌다(Rich, 1991, p.433).

반면 오스트리아는 그러한 세르비아의 성장을 우려했다. 더군다나 세르비아의 성공에 고무된 이중제국 내 남슬라브인들은 합스부르크가의 통치에 저항하기 시작했다(Weaver, 2016). 오스트리아는 늦기 전에 세르비아에 대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초조해 했다(Clark, 2013, pp.114-115). 그러나 독일은 동맹의 초조함 때문에 러시아와의 데탕트를 훼손시키고 싶진 않았다. 독일은 빈이 세르비아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세르비아에 대한 유화책을 권유했다(Clark 2009). 이와 같이 독일-오스트리아 관계에서 피후견국이 느끼는 압박한 위협은 증대되었다. 반면 후견국은 다른 강대국과의 데탕트에서 누리는 이익으로 인해, 피후견국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했다. 그 결과 양자 관계는 피후견국이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후견국은 피후견국이 제공하는 전략적 이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후견국 중심’ 혹은 ‘후견국 우위’에 가깝게 변화되었다.

### 3. 사라예보 암살과 7월 위기

오스트리아 황태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Archduke Franz Ferdinand) 부부가 암살당한 사라예보 사건을 주도한 것은 드미트리예비치(Dragutin Dimitrijević)가 이끄는 세르비아 민족주의 결사인 흑수단(Crna ruka)이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구상하던 삼중제국안(Trialism)의 실현을 두려워했다. 삼중제국안은 제국내에서 독일인, 헝가리인에 이어 남 슬라브인의 자치국가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이 보기에 이 기획은 남 슬라브민족 통합에 방해가 될게 분명했다. 나아가 세르비아가 합스부르크제국의 위성국이 되거나 제국에 병합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ahten, 2020).

암살은 또한 세르비아 국내정치적인 측면이 있었다. 흑수단은 정책 결정의 중심을 놓고 파시치(Nikola Pašić) 수상과 민간정부와 갈등했다. 드미트리예비치는 외교적 난제를 만들어 오스트리아에 대한 유화책을 피던 파시치정부와 그를 후원하던 러시아를 곤란하게 만들고 선택을 강요하고자했다(Šarenac, 2020, p.14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암살은 피후견국 내 일부조직에 의한 위기 조작의 측면을 지녔다.

사라예보 암살은 오스트리아로 하여금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로 전쟁을 추구하게 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후견국 독일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종을 시도했다. 오스트리아는 암살 이후, 호요스 백작(Alexander Graf von Hoyos)을 특사로 베를린으로 파견해 세르비아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Rich, 1991, pp.440-441). 이러한 행동은 기존에 존재하는 위협을 보다 크고 임박하다고 과장하는 위기 과장에 해당한다. 독일은 이에 대해 전면적 지지를 약속하는 백지수표를 발행했다.

독일의 지지를 확보한 오스트리아는 외교적 중재를 피하고 전쟁을 불가피하게 하는 상황들을 유도했다. 그들은 세르비아의 내정에 간섭할 빌미를 주는 최후통첩안을 작성해 짧은 기간 내에 답변을 요구했다(Rich, 1991, p.569). 이에 세르비아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며 추가협상을 위한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MacMillan, 2013, p.571). 빌헬름2세(Wilhelm II)는 이것을 ‘도덕적 승리’라 부르며 반겼지만 오스트리아는 제안을 거부하고 세르비아와의 단교를 선언했다. 그리고 교전이 있었다는 오인보고를 이용해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 포고를 정당화했다(Rauchensteiner, 2014, pp.127-128). 게다가 영국이 제안한 열강들의 중재를 받아들이라는 독일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Rich, 1991, p.453). 이러한 행동들이 불러올 세르비아와의 전쟁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위기 조작에 해당한다.

오스트리아가 시도한 위기 조종의 결과는 성공이었다. 당초 독일은 사라예보 사건을 빌미로 국지적, 외교적 승리를 기획했다. 그러나 합스부르크제국의 위기 조종으로 인해 전쟁이 불가피 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전쟁 발발에 이르기까지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반면 세르비아는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사라예보 암살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위기 조종으로 구분될 만한 행동을 시도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위기 조종 성공은 러시아와 독일 간 상호인식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한 결과였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합병위기 이후, 수년간 잠복해 있던 후견국들의 경쟁적 사고는 사라예보사건과 그 이전에 발생한 위기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러시아와 독일 간 데탕트는 위기로 확산된 리만 폰 잔더스(Liman von Sanders) 파견으로 인해 1913년 말부터 파열을 겪고 있었다.

독일 장군인 잔더스를 터키가 콘스탄티노플과 터키 해협의 방어 책임자로 임명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러시아는 자국의 핵심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해협에서 독일인 장교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자국의 이해를 크게 침해받는다며 반발했다(Schmutz, 2015). 반면 독일은 다른 열강들이 터키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오직 독일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반박했다.

위기는 결국 양측의 타협으로 해결되었지만, 러시아와 독일의 언론은 결과를 두고 자국 정부의 패배라고 부르며 언론전쟁을 추동했다(MacMeekin, 2011, p.32). 러시아는 잔더스 사태를 다른 일련의 조치들과 함께 터키를 피후견국으로 삼아 러시아를 봉쇄하려 하는 독일의 음모로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이국동맹과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봤고, 충돌이 발생할시 게르만 세력을 남쪽에서 견제할 세르비아의 전략적 가치는 후견국 러시아에게 있어 보다 중요해졌다.

반면 독일은 러시아의 반대가 협상국 편에 서서 독일을 포위하려는

대전략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러시아가 힘을 회복함에 따라, 독일에게 복수하려 할 것을 두려워했다(Leonhard, 2018, p.80). 그에 따라 협상국들의 양면포위를 돌파하기 위한 오스트리아의 가치가 재평가 되었다. 이렇게 두 강대국 지도부에서는 상황을 경쟁적으로 바라보는 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라예보 암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협적인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일치를 보았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은 중요한 전략적 이익을 주는 오스트리아가 결국 붕괴하거나, 굴복하게 될 것을 우려했고, 오스트리아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독일은 피후견국의 위기를 러시아 세력의 도전에 너무 늦기 전에 썩기를 막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했다. 러시아가 개입하기 전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패배시킨다는 이른바 “계산된 리스크(Calculated Risk)”에 기반을 둔 기획이었다(Herwig, 2003, p.167).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처해 있던 한계, 그리고 전쟁 목표에 대한 그들만의 구상은 독일의 기획을 가로막았다.<sup>5)</sup> 오스트리아는 독일이 만족할만한 결과와는 별개로 그들만의 목적을 추구했다. 독일은 피후견국을 그대로 방기할 수 없었고, 연루되어갔다.

다른 한편, 잔더스 사태는 러시아에서도 외부환경에 대한 위협적 인식을 불러왔다. 독일에 대한 양보는 이후 더 많은 것을 내주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사고가 러시아 내각을 지배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전쟁 준비에 돌입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초조함을 부추겼다. 1914년 7월 마지막 주의 며칠간 독

5) 합스부르크제국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각료로 구성된 공동 내각으로 대외정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결정권을 지녔던 헝가리 수상 이슈타반 티사(István Tisza)는 전쟁의 결과가 승패에 상관없이 제국, 정확히는 헝가리에 손해라고 인식해 전쟁결정을 가로막고 지연시켰다(Rauchensteiner 2014, p.93).

일과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양보해서 나중에 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느니 지금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고가 퍼졌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터키에 독일 군사고문단을 배치하는 문제로 촉발된 잔더스 사태는 독일과 러시아 양측에 잠복했던 경쟁적 사고가 분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두 후견국의 관계는 협력에서 경쟁으로 기울었고 상대 강대국에게 맞서 전략적 이점을 보장해주는 피후견국의 가치와 중요성은 상승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라예보 암살은 피후견국이 느끼는 위협 체감을 한층 더 강화 시켜주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꼈고, 세르비아는 이중제국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이와 같이 피후견국들은 직면한 위협에 맞서 후견국의 지지를 필요로 했고, 다른 한편 후견국들 역시 국제 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함에 따라 피후견국의 가치가 중요해졌다. 그로인해 이 시기 두 관계는 모두 피후견국은 위협에 직면해 있고, 후견국은 피후견국을 통해 전략적 이점을 추구하는 영향력분할 유형의 성격을 강하게 보였다.

#### IV. 분석의 결과와 함의

〈표3. 위기의 구성요소에 따른 발칸위기들의 분류〉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합병위기		
위기의 원인	국제여론에 의한 의도치 않은 상황 전개.	
피후견국들의 위기 조종	세르비아	오스트리아와의 접경지역에 군대를 이동시키고 전쟁 준비 태세에 돌입(위기 조작)
	오스트리아	합병에 대한 대가로 세르비아와 러시아에 대한 보상

		거부(위기 조작) 세르비아와의 접경지역에 부분동원령 발령(위기 조작) 합병을 인정하도록 세르비아에게 최후통첩(위기 조작)
후견국들의 협력·경쟁적 사고	뚜렷하지 않음.	
위기의 결과	오스트리아의 위기 조종 성공. 후견국들의 경쟁적 전설적 사고를 위한 토대가 형성. 러시아-세르비아 간 연대감 강화. 오스트리아-헝가리와 독일간 관계가 소원해짐.	
제1,2차 발칸전쟁		
위기의 원인	세르비아를 비롯한 러시아의 발칸 피후견국들의 위기 조종.	
피후견국들의 위기 조종	세르비아	발칸동맹국가들과 오스만 터키에 대해 선전포고(위기 조작) 아드리아해 접근을 전쟁목표로 선언하고 추구(위기 조작) 몬테네그로의 스쿠타리 공성을 지원(위기 조작) 전후 알바니아 영토에 침입, 점령(위기 조작)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시범동원에 부분동원으로 맞대응(위기 조작) 세르비아와의 접경지역에 부분동원령 발령(위기 조작) 세르비아의 성장이 존재론적 위협이 되었다고 삼국동맹의 지지를 요청(위기 과장)
후견국들의 협력·경쟁적 사고	앞선 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데탕트 시도로 협력적으로 기움.	
위기의 결과	피후견국들의 위기 조종 실패. 후견국들을 비롯한 강대국협조체제로 이해관계가 조절. 세르비아의 성장에 따른 러시아의 가치 평가 상승 및 오스트리아의 우려증가. 데탕트의 지속을 원하던 독일과 발칸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오스트리아간의 관계 불화.	
7월위기		

위기의 원인	세르비아내 일부세력에 의한 위기 조종.	
피후견국들의 위기 조종	세르비아	사라예보 암살(위기 조작)
	오스트리아	특사를 파견해 압박한 세르비아의 위협을 이유로 전쟁의 필요성을 주장(위기 과장) 세르비아에게 내정간섭의 여지가 있는 최후통첩을 전달(위기 조작) 오인된 교전보고를 공식화해 선전포고를 정당화(위기 조작, 위기 과장)
후견국들의 협력·경쟁적 사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잔더스 사태)로 양국지도부 모두에서 경쟁적으로 기음	
위기의 결과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위기 조종 성공.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출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앞서 2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소개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독일, 세르비아와 러시아관계는 슈메이커와 스파니에의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 유형분류 중에서도 영향력 분할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유형은 피후견국이 높은 안보적 위협에 직면해 있고, 후견국이 피후견국이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에 큰 관심을 지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이 유형에 속하는 후견국들은 피후견국의 위기 조종에 쉽게 노출되고, 또 조종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모든 영향력 분할 유형의 후견-피후견관계에서 위기 조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위기 조종의 성공이 강대국들 간 대치로 이어지진 않는다. 표 3에서 보이듯, 발칸에서는 8년 동안 세 번의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피후견국에 의한 위기 조종이 있었다. 그러나 위기조종은 항상 성공하지도 않았고, 성공하더라도 강대국들 간의 전면전쟁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발칸의 사례에서 위기 조종을 성공하게 만들고 강대국간 전면전쟁으로까지 견인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할 때, 위기

를 인식하는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시야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후견국과 피후견국간 수준 차이로 인한 인식의 차이를 지적한다. 슈메이커와 스파니에에 따르면, 후견국, 특히 그들이 초강대국이라면 국제체제를 지구적 관점에서 본다. 후견국의 우선적인 안보계산은 강대국간 전면전의 가능성에 있다. 후견국의 안보위협은 다른 후견국인 초강대국 외에는 없다.

반면에 피후견국의 정치적 시야는 보다 좁다. 그들은 어떻게 서로 다른 국제정치적 영역들이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피후견국은 생존에 대한 위협을 보다 자주, 다양하게 마주친다. 피후견국들은 후견국이 지니는 초강대국간 적대의 지구적 함의에 대해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Shoemaker & Spanier, 1984, p.183).

이러한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인식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세기 발칸에서도 발견된다. 강대국간 전면 전쟁이 가져올 막대한 파괴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후견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그들 간 전면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다. 반면 발칸의 피후견국들은 직면한 위협과 야망이 중요했다. 그 결과 발칸에서는 위기 조종과 같은 모험을 시도하는 피후견국들과, 그로 인한 유럽 전면전의 발발을 막으려는 후견국들의 행동이 교차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수준 차이에 대한 강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범지구적인 후견국의 시각에 국지적인 피후견국의 시각이 종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가능케도 한다. 하지만 후견국들의 범지역적, 지구적인 시야와 사고는 항상 위기를 억제하고 방지하는 방향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심지어 치명적인 실수를 유도하기도 한다. 후견국들은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범지구적인 확증편향에 갇힐 수 있다. 그 결과, 독립된 각각의 맥락이 있는 별개의 위기들을 자신을 향한 라이벌 강대국의 대전략적인 음모와 도전의 일부라고 판단할 수 있다(Bercovitch, 1991).

그런 상태에서 후견국들은 직면한 위기에서 상대 강대국을 향한 강력한 대응으로 상대의 도전과 음모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사고로 이어진다. 그리고 피후견국이 관련된 위기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유용한 기회가 된다. 1914년 7월 위기에서 독일과 러시아의 지도부는 이와 유사한 사고를 보여준다. 생각지도 못하게 발생한 잔더스 사태는 독일과 러시아 지도부에 경쟁적 사고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사태는 타협으로 해결되었지만 충분치 못했다는 불만족이 남았다. 이후 상대 강대국의 도전에 너무 늦기 전에 췌기를 박아야한다는 강박증이 드리워졌다. 사라예보 암살이 발생하자, 양측은 이를 기회로 이용할 상대의 도전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물론 그들은 서로간의 전면전을 두려워했기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후견국인 오스트리아는 후견국의 주저함으로 인해 위협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다. 때문에 외교적 중재를 차단하는 위기 조작을 시도했다. 더군다나 피후견국도 마찬가지로 경쟁적 사고를 공유할 때, 위기 조종은 보다 절박하게 시도된다. 사라예보 암살은 “남슬라브의 위협”이라는 유령에 실체를 부여해 오스트리아 지도자들을 경쟁적 사고에 구속시킨 계기였다.

독일과 러시아는 여기서 피후견국을 억제하는 양보를 보인다면 나중에는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쟁에 돌입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제3차 발칸전쟁의 개전은 연속된 위기가 후견국들에게 상대의 대전략적 음모에 대한 두려움을 초래해 피후견국의 위기 조종이 성공하기 쉽도록 작용한데 있었다.

더불어서 위기 조종의 영향도 누적적으로 작동하며 그 방향은 일관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위기 조종은 성공하게 되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후견국과 피후견국 양자관계를

긴밀하게 한다. 하지만 위기가 진정된 후에도 그 긴밀함이 유지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위기 조종이 성공함으로 인해 감수해야했던 리스크가 재현될 두려움으로 이후 양측관계가 소원해 질 수 있다. 오스트리아-독일관계가 그러했다. 반면 위기 조종의 실패가 후견국과 피후견국 양자를 소원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피후견국의 위기 조종, 특히 위기 조작은 대부분 그들의 절박한 상황인식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보내지 못하게 되면 관계가 지속되는 한 후견국에게 부채감으로 작동할 수 있다. 러시아와 세르비아 관계가 그러했다. 따라서 위기 조종 이후에도 후견-피후견관계가 생존하게 된다면, 위기 조종이 끼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고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여전히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오늘날의 국제관계에 대해 이해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 V. 결론

본 연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이르기까지의 발칸을 중심으로 한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러시아와 세르비아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당시 피후견국간의 갈등에 후견국이 연루되어 강대국간 충돌로 확산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에 대한 유형 분류와 피후견국에 의한 위기조종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후견국들간의 협력과 경쟁에

6) 대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편으론 호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불일치와 중속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러시아의 딜레마는 본 연구에서 다룬 오스트리아가 독일과의 관계에서 겪은 딜레마와 맞닿아 있다(박상남 2023).

관한 상호인식을 결합시켜, 피후견국의 위기 조종이 성공하고 나아가서는 후견국들이 연루된 전면전쟁으로 확산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했다.

그리고 1914년에 이르기까지 발칸위기의 역사적 전개를 세 시기,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합병위기, 제1,2차 발칸전쟁, 7월 위기로 구분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세르비아라는 두 관계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위기의 원인과 결과, 피후견국의 위기 조종 시도의 성공여부, 후견국들간의 협력 혹은 경쟁적 사고에 따라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러시아와 독일이라는 후견국의 경쟁관계, 그리고 그들의 피후견국인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위기 조종 시도는 그 자체로 충동을 필연적으로 만들진 않았다. 그러나 위기 조종은 후견국들에게 잠복적이고 누적적으로 작동할 경쟁적 사고의 맹아를 심어주었다. 이후 예상치 못하게 연속된 위기가 발생하자, 범지역적, 지구적 수준에서 상황을 조망하는 후견국들은 이를 개별적인 별개의 이슈로 보지 않고, 상대 강대국이 대전략적인 음모와 도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었다. 그 결과 상황을 경쟁적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양측 지도부를 지배했고, 후견국들은 위기 조종에 취약해졌다. 이것이 발칸의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의 맥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이었다.

또한 위기 조종의 영향도 누적적으로 작동하며 그 방향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위기 조종의 결과가 어떤 맥락 속에서 관계의 이후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가는 후속연구를 통해 정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후속연구들은 여전히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선재&김수한(2022). 탈중국을 위한 대만 남향정책의 지속과 변화: 균형과 편승의 동학. *분석과대안* 제6권1호.
- 나이. 양준희 역(2001).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한올아카데미
- 뮌클러. 장춘미 & 탁선미 역(2017), *파편화한 전쟁: 현대와 전쟁폭력의 진화*. 곰출판.
- 박상남(2022). 러·중 밀월관계의 본질과 러·우 전쟁의 종결 필요성. *동북아워치* 제7호.
- 박상섭(2014). *1차 세계대전의 기원: 패권 경쟁의 격화와 제국체제의 해체*. 아카넷.
- 이성원(2022). 다극체제와 동아시아 안보: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협 논의의 재고찰. *분석과대안* 제6권2호.
- 윌츠. 박건영 역(2000). *국제정치이론* 사회평론.
- 장세호(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분석과대안* 제6권2호.
- 키친. 유정희 역(2011).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독일사*. 시공사.
- Aksakal, M.(2010). *The Ottoman Road to War in 1914: The Ottoman Empire and the First World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covitch, J.(1991). “Superpower and Client states: Perception interatction”. in Efrat, M. and Bercovitch, J.(eds.), *Superpowers and Client States in the Middle East*, Routledge.
- Bridge, F. R. & Bullen, R.(2005). *The Great Powers and the European States System 1814-1914*. Pearson Education Limited.
- Carney, P. C.(1989). “International Patron-Client Relationships: A Conceptual Framework”.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24(2).

- Fischer, B. J.(2016). “The Balkan Wars and the Creation of Albanian Independence”. in Pettifer, J. & Buchanan, T.(eds.), *War in the Balkans: Conflict and Diplomacy before World War I*. Bloomsbury Publishing.
- Clark, C.(2009). *Kaiser Wilhelm II: A Life in Power*. Penguin Books
- \_\_\_\_\_(2013), *The Sleepwalkers: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Harper.
- Crampton, R. J.(1977). “The Balkans as a Factor in German Foreign Policy, 1912-1914.”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55(3).
- Hacısalıhoğlu, M.(2013). “The Young Turk Policy in Macedonia: Cause of the Balkan Wars?” in Ruthner, C, Cordileone, D. R, Reber, U. & Detrez, R. (eds.), *Wechselwirkungen: Austria-Hungary, Bosnia-Herzegovina, and the Western Balkans, 1878-1918*. New York : Peter Lang Publishing Inc.
- Hall, R. C.(2003). “Serbia.” in Hamilton, R. F. & Herwig, H. H. (eds.), *The Origins of World War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öbelt, L.(2020). “Why fight a Third Balkan War? The Habsburg mindset in 1914.” in Cornwall, M. (ed.), *Sarajevo 1914: Sparking the First World War*. BLOOMSBURY ACADEMIC.
- Leonhard, J.(2014). *Pandora’s Box: A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C. H. Beck, Patrick, C.(2018). (Trans.), *Pandora’s Box: A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Belknap Press.
- Lieven, D.(2016). *Towards the Flame: Empire, War and the End of Tsarist Russia*, Penguin.
- MacMeekin, S.(2011). *The Russian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Harvard University Press.
- MacMillan, M.(2013). *The War That Ended Peace: The Road to 1914*,

- Random House.
- Otte, T. G.(2014). ‘A “formidable factor in European politics”:Views of Russia in 1914.’ in Levy, J. S. & Vasquez, J. A. (eds.), *The Outbreak of the First World War: Structure, Politics, and Decision-Ma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hten, A.(2020). “Great expectations The Habsburg heir apparent and the Southern Slavs” in Cornwall, M. (ed.), *Sarajevo 1914: Sparking the First World War*. BLOOMSBURY ACADEMIC.
- Rauchensteiner, M.(2013). *Der Erste Weltkrieg: Und Das Ende Der Habsburgermonarchie 1914-1918*. Böhlau Verlag, (Trans.), Guttel, A. & Kay, A. J.(2014). *The First World War and the End of the Habsburg Monarchy. 1914-1918*. Böhlau Verlag.
- Remak, J.(1971). “The Third Balkan War: Origins Reconsidered.” *Journal of Modern History*. 43.
- Rich, N.(1991). *Great power Diplomacy 1814-1914*. McGraw-Hill Humanities.
- Šarenac, D.(2020). “Why did nobody control Apis?: Serbian military intelligence and the Sarajevo assassination.” in Cornwall, M. (ed.), *Sarajevo 1914: Sparking the First World War*. BLOOMSBURY ACADEMIC.
- Schmutz, T.(2015). “The German Role in the Reform Discussion of 1913 -14.” in Kieser, H. L. Öktem, K. & Reinkowski, M. (eds.), *World War I and the End of the Ottomans: From the Balkan Wars to the Armenian Genocide*. I.B. Tauris.
- Shoemaker, C. & Spanier, J.(1984). *Patron-Client State Relationships*. Praeger.
- Snyder, J. L.(2000).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W W Norton & Co Inc.

Taylor, A. J. P.(1980). *The Struggle for Mastery in Europe: 1848-1918*.  
Oxford University Press.

Weaver, E. B.(2016). “Yugoslavism in Hungary during the Balkan Wars”  
in Pettifer, J. & Buchanan, T., (eds.), *War in the Balkans: Conflict  
and Diplomacy before World War I*. Bloomsbury Publishing.

Windsor, P.(1991). “Superpower and Client states: Perception and  
interatction” in Efrat, M. & Bercovitch, J. (eds.), *Superpowers and  
Client States in the Middle East*. Routledge.

Manuscript: Jan 18, 2023; Review completed: Feb 03, 2023; Accepted: Feb 03, 2023